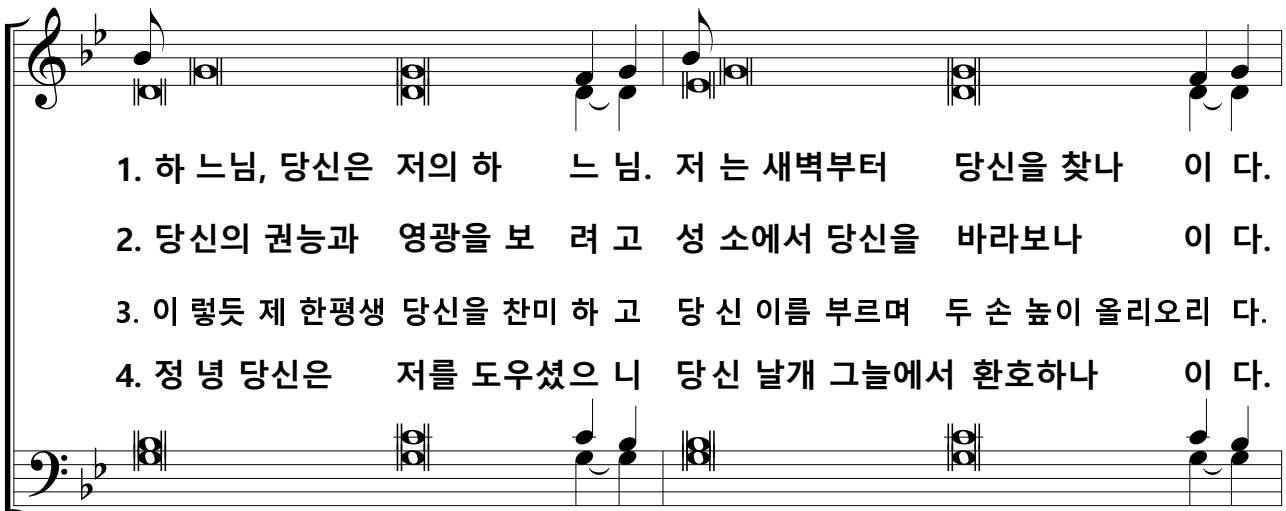


연중 제 22 주일 화답송 [가해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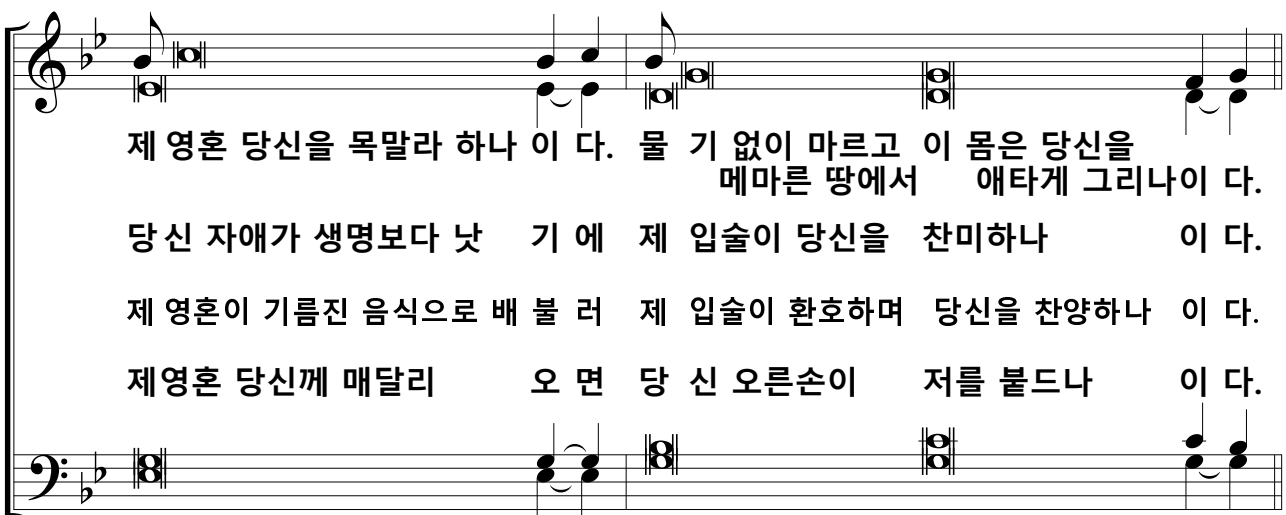
시편 63(62), 2. 3- 4. 5- 6. 8- 9



(후렴) 주 - 님, 저 의 하 느 님, 제 영 혼 당 신 을 목 말 라 - 하 나 이 다.



1. 하 느 님, 당 신 은 저 의 하 느 님. 저 는 새 벽 부 터 당 신 을 찾 나 이 다.
 2. 당 신 의 권 능 과 영 광 을 보 려 고 성 소 에서 당 신 을 바라 보 나 이 다.
 3. 이 렇 듯 제 한 평 생 당 신 을 찬 미 하 고 당 신 이 름 부 르 며 두 손 높 이 올 리 오 리 다.
 4. 정 녕 당 신 은 저 를 도 우 셧 으 니 당 신 날 개 그 늘 에서 환 호 하 나 이 다.



제 영 혼 당 신 을 목 말 라 하 나 이 다. 물 기 없 이 마 르 고 이 몸 은 당 신 을
 메 마 른 땅 에서 애 타 게 그 리 나 이 다.
 당 신 자 애 가 생 명 보 다 낮 기 에 제 입 술 이 당 신 을 찬 미 하 나 이 다.
 제 영 혼 이 기 름 진 음식 으로 배 불 러 제 입 술 이 환 호 하 며 당 신 을 찬 양 하 나 이 다.
 제 영 혼 당 신 께 매 달 리 오 면 당 신 오 른 손 이 저 를 불 드 나 이 다.